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沈 在 箕*

I. 緒 言

俗談에 대한 關心이 높아진 今世紀初以來로 俗談의 蒐集과 整理는 상당히 進陞되었으나 俗談이 果然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精密한 概念規定 및 話用論的 諸機能의 糾明問題등에 이르러서는 滿足할 만한 研究成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形便이다.

本稿는 이와같은 俗談研究의 現狀을 打開하여, 俗談類의 言語資產에 대한 全體的인 展望과 包括的인 理解를 지니고 俗談을 體系的으로 敘述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하는 하나의 試論이다.¹⁾

II. 概念 定立

俗談을 簡潔하게 定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定義로부터 俗談을 明快하게 說明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俗談에 대한 말을 만한 定義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辭典의 定義를 살펴 보기로 하자.²⁾

* 人文大 教授

- 1) 그동안의 俗談研究는 俗談의 어느 一部分만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든지 總體的이고 綜合的인 研究는 없었다. 本稿는 이러한 統合性を 強調하는 觀點에서 可能的 限 論題의 種目を 羅列하거나 提示하는 態度를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의 論議는 從來業績의 概觀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 2) ㉔는 이희승의 國어대사전(1961, 민중서관)이고 ㉕는 신기철·신영철의 새 우리말 큰사전(1975, 三省出版社)이다.

속담 : ④ 옛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격언(格言)

⑤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同感)을 얻고 퍼져서 온 민족에게 공통된 격언. 비언(鄙諺)

격언 : ⑥ 속담등과 같이 사리(事理)에 꼭 들어 맞아 교훈이 될만한 짧은 말 토막. 금언(金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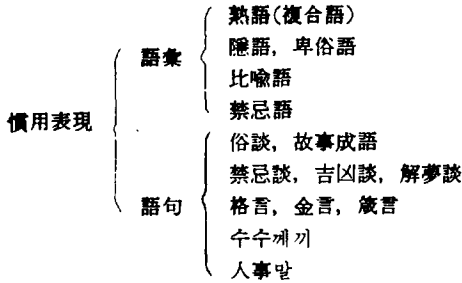
⑦ 사람이 오랜 역사적 생활체험에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과 경계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 금언(金言)

이들 說明을 보면, 俗談을 格言 또는 金言과 완전히 混同하여 풀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俗談”이라는 用語가 그 指示對象이 되는 言語的 表現의 特性과 機能을 완전히 파악하고 조심성있게 命名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言語社會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뒤에 言語大衆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俗談과 비슷한 特性과 機能을 가진 다른 表現語句들이 있어서 그러한 表現語句와의 差異가 一般 言衆에게 쉽게 識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³⁾

그러므로 우리는 俗談을 定義하기 위한 基礎作業으로, 俗談을 種概念으로 하는 同位概念들과 그 윗 段階의 類概念을 먼저 選別해야 할 必要가 있다. 우선 類概念으로는 慣用表現(Idiomatic expression)이라는 用語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類概念을 語彙項目에 속하는 것과 그 以上の 것으로 兩分한다면 前者에는 熟語·隱語·卑語·俗語·比喩語·禁忌語등 語彙的 次元의 것들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俗談, 故事成語, 禁忌談, 吉凶談, 解夢談, 格言, 金言, 箴言, 수수께끼, 人事말

3) 社會的 命名이 때로는 매우 適切한 名稱을 만들어 내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지극히 包括的이어서 核心的인 意味를 表出하는 데에는 適合치 못하다. “俗談”이란 用語도 그러한 部類의 하나이다. 이 用語가 最初로 出現한 것은 同文類解(1748 A.D.)에서 비롯하는데 그 무렵까지 諺, 俚言, 俚諺, 俗諺, 常言, 常談등이 두루 쓰여 왔다. 이와 같은 事情은 英語의 경우에도 例外가 아니다. “saying”이란 用語와 類義關係를 形成하는 단어로 “maxim, adage, proverb, motto, axiom, aphorism, epigram, apothegm”등이 意味 機能上的 焦點을 달리 하면서 섞여 쓰이고 있다.

등을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分類表가 전혀 完璧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 分野에 關心을 둔 研究 結果는 이 정도의 表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表에 의하여 俗談이 지니는 種差를 어떻게 定할 것인가하는 問題가 남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慣用語彙나 慣用語句들이 實際의 發話現場에서 어떤 意味機能을 遂行하는가에 대하여 窮究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慣用表現들도 簡明하고 單一한 意味機能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脈絡(context)과 現場狀況(situation)에 따라 意味機能이 多様하고도 流動的으로 遂行된다는 事實이 性急하게 俗談이 지니는 種差를 決定짓지 못하게 만든다. 慣用表現語句들은 애초부터 복잡한 話用論的 現場狀況에 効果的으로 쓰이는 表現手段으로 定着되기까지 오랜 기간 言衆들에게 시달리면서 詩的으로 整齊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慣用表現語句(以下에서는 간단히 '慣用語句'로 적음)들이 비록 어떤 意味機能에서 重複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慣用語句와 對比했을 때 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한다거나, 보다 基本的 내지는 優先的이라고 생각되는 意味機能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格言이 教訓을 基本意味機能으로 삼고 있으며, 禁忌談이 禁制를, 吉凶談이나 解夢談이 豫言的 判斷을 그리고 人事말이 親交를 각각 基本意味機能으로 하는 것이라면 俗談의 基本意味 機能은 무엇인가? 뒤에서 더 자세히 論議되겠지만 俗談의 基

本意味機能은 아마도 어떤 特定事實에 대한 比喩的 敘述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俗談은 “어떤 事實을 比喩로 敘述하는 데 쓰이는 慣用語句”라고 우선은 暫定的으로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⁴⁾ 물론 우리는 慣用語句 앞에 ‘簡潔한’이라는 冠形語를 덧붙여서 俗談이 지니는 統辭的 形式美를 밝힐 수도 있으며, 比喩의 機能을 土臺로 하여 副次的으로 作用하는 ‘教訓的 또는 諷刺的’이라는 말을 더 끼어 넣어서 좀더 자세한 說明을 試圖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慣用”이나 “比喩”라는 用語를 敷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III. 生成과 定着

俗談의 發生은 特定한 歷史的 事例에 대한 描寫로부터 形成되는 경우와, 日常으로 자주 發生하는 一般事例에 대한 描寫로부터 形成되는 경우의 두 가지 經路를 생각할 수 있다. 大部分의 俗談이 後者の 經路로 生成된 것이지만 그것도 反復되는 特殊事例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根源的으로는 前者와 無關한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俗談은 具體的인 特定 事件의 記述 내지는 描寫로부터 生成의 素地를 마련한다.

歷史는 反復된다는 말이 俗談의 生成을 證據하는 有力한 表現이다. 歷史的으로 特異한 事件이 發生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그에 比定되는 또 하나의 비슷한 事例가 發生했을 때, 言衆은 過去의 事實을 想起하고 그

4) 그러므로 俗談을 基本意味機能에만 충실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比喩談”이라는 用語로 代替할 수도 있다. 그러나 俗談이란 用語가 너무도 큰 勢力으로 慣用되어 왔기 때문에 用語의 代替는 오히려 混亂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참고로 俗談을 定義한 다른 例를 적어 본다.

• 俗談은 一般的으로 隱喩의 形式으로 꼭 짚인 慣用語句로서 民衆의 智慧가 그 生活經驗을 表現하는 것. (J. Pineaux)

• 教訓的 要素와 印象의 表現形式을 가지고 衆人의 口に 오른 固定된 文句(Friedrich Seiler)

때에 使用했던 表現을 새로운 事態에 適用한다. 言語經濟의 觀點에서 당연한 歸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口碑文學이나 民俗學에 關心을 둔 學者들에 의하여 民譚이나 說話傳承의 一環으로 注目되어 왔었다. 背後民譚을 가진 俗談類의 慣用語句가 여러가지 觀點에서 分類되고 檢討되었던 것은 俗談이 特定事例에 바탕을 둔 描寫 記述樣式에서 生成되었음을 雄辯으로 말해준다.⁵⁾ 따라서 우리는 固有名詞가 등장하는 俗談을 통하여 特定한 事例로부터 俗談이 生成되었으리라는 움직임 수 없는 確證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 그 例를 몇 개 적어보기로 한다.

1. 黃政丞네 치마하나 세 母女가 들려입듯.
2. 송기는 四溟堂의 사춧방이라.
3. 韓相國의 農事짓기.
4. 高守寬의 만전피기.
5. 下學道 잔치에 李道令의 밤상.
6. 靈峰이 내 마음을 알지.
7. 趙子龍이 헌 칼 쓰듯.
8. 張飛는 만나면 싸움.
9. 松都 末년에 불가살이.
10. 楊州縣監 죽은 말 지키듯.
11. 牙山이 깨어지나 平澤이 무너지나.
12. 平壤監司도 저 싫으면 그만.

1~4는 실제의 歷史의 人物을 素材로 하고 있으며 5~8은 春香傳이나 三國志 등 文學作品의 人物을 素材로 하고 있고 9~12는 歷史的 事實이 地名과 結付되어 있다.

한편 典據가 分명한 俗談의 領域에서 빼놓을 수 없는 一群의 俗談에 이른바 古事成語라고 하는 部類가 있다. 四字構成을 主軸으로 하는 이 慣用語句들은 그 用語가 指示하는 바처럼 古事, 그것도 대체로 中國의

5) 曹喜雄(1969)은 俗談에 속하는 慣用語句 82개를 ① 有名人物 ② 無名人物 ③ 地名 ④ 動物 ⑤ 事物 등 다섯 部類에 나누어 그 源初的 發生을 例證하였으며 姜在哲(1980)은 俗談을 發生論的 觀點에서 ① 先說話後俗談型 ② 先俗談後說話型 ③ 獨立俗談型的 세 가지로 나누어 俗談을 解說하고 있다.

歷史的 事實에 根據하고 있다. 때때로 語彙的 用法으로 쓰이기는 하지 만 그 意味內容은 대부분 統辭的 構成으로 還元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中國 傳來의 古事成語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形成된 俗談 조차 漢字로 四字構成의 語句를 만드는 데 깊은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李義鳳의 東韓譯語에는 106種의 우리나라 俗談을 蒐集하고 있는데, 그 중 66種을 四字構成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형편이다.⁶⁾

俗談이 俗談으로 定着하는 過程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俗談은 한 個人의 比喻的 用例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그 個人이 無意識的으로 發說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意圖된 奇拔한 着想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比喻의 語句가 새로운 事例에 適用될 때에, 그것을 理解한 言衆이 그 適切性에 驚異와 快感을 느껴 크게 共感하지 않는 限 그것은 俗談으로 定着하지 않는다. 또 共感이 되었다 하여도 그 表現된 語句는 아직 좀더 다듬어져야 할 餘地가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再引用이 될 만큼 社會的 普遍性을 그 意味內容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보다는 더 整齊되어 가면서 共感을 느꼈던 言衆에 의해 不斷히 再引用되었을 때, 그것은 俗談이 될 資格을 갖추고 言語社會에 定着한다. 다음 몇 例를 갖고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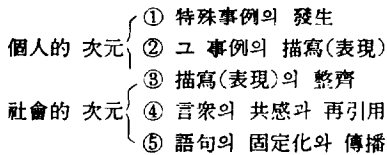
13. 의사와 변호사는 나라에서 낸 도둑놈.
14. 중매 반, 연애 반.
15. 미국은 밀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

이들 13~15는 분명히 20세기 초엽에서 중엽에 걸쳐 生成된 語句들이 다. 그런데 13은 “의사와 변호사는 허가 낸 도둑놈”등 약간씩 다른 表現을 가지고 完全히 우리 社會에 定着한 俗談이며, 14도 比喻性은 強하지 않으나 그런대로 比例的 用例로 擴散할 餘地를 갖고 言衆에게 愛用

6) 拙稿(1981) 李義鳳의 東韓譯語에 대하여(先濟語文 11·12合輯, 金亨奎博士 古稀紀念論叢)參照.

되는 편이다. 그러나 15는 外勢를 警戒하고 ‘自主的 力量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發話現場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1940年代 後半에 流行語句의 性格을 지니고 잠시 사용되었을 뿐, 現在로서는 俗談으로 定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앞으로 어느 時期에 가서는 俗談으로 定着할 必要條件은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흔히 俗談은 前近代의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을 反映한다 하여 過去에 生成된 것이며 現在에는 生成되지 않는 것으로 錯覺하는 수가 있다. 물론 現在의 時點에서 靜態的으로 理解하려고 할 때, “現代에 만들어진 俗談”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定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固定된 語句로 定着하지 않았거나, 一般言衆의 再引用 내지는 共感의 幅이 넓지 않을 수는 있지만 俗談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을 지닌 語句는 流行語句의 性格을 띠고 分明히 存在하고 있다.

위의 論議를 토대로 俗談의 定着過程을 段階別로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⁷⁾



이 표를 통하여 우리가 附隨的으로 確認할 수 있는 사항은 俗談이 애초에 個人的, 口語的, 特殊的인 것으로부터 出發하지만, 나중에는 社會的, 文語的, 一般的인 것으로 歸結됨으로써 바로 그 言語社會의 眞面目을 드러내는 얼굴이 된다는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俗談은 가끔 그 定着過程에서 途中에 訛傳되기도 한다. 俗談의 意味機能이 基本的으로 是 比喻이기 때문에 正確한 語形이나 意味內容을 잘 모르고 使用했을 경

7) 이 表를 作成하는 데에는 金善豐(1980:261)의 見解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① 發生動機 ② 創案 ③ 造句 ④ 認可 ⑤ 膾炙과 傳述이라고 하는 다섯 段階로 區分하였다.

우에, 이른바 民間語源의 方法으로 再構成한 俗談은 원래의 語形이나 意味와는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 때에, 俗談이 지닌 比喻上의 基本意味가 訛傳으로 因해 完全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경우와 部分的인 變改를 입는 두 가지의 길이 있게 된다.

먼저 완전히 바뀌는 例를 살펴 보자.

- 16 a. 屈原이 제 몸 추듯.
- 16 b. 구렁이 제 몸 추듯.
- 16 c. 구렁이 담 넘어가듯.

中國 楚나라 詩人 屈原(343BC?~277BC?)은 離騷등 格調 높은 抒情性의 作品을 남겼다. 晩年에 政治的으로 不運하여 放浪生活을 할 때, 짐짓 술에 취해 춤을 추면서 자기를 몰라주는 세상을 비웃었다. 이러한 屈原의 故事로부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指稱하여 16a의 俗談이 발생하였는데, ‘굴원이’의 발음이 자칫 ‘구렁이’로 들리기도 하여 16b가 또 생겼다. 여기에서 굴원의 故事를 모르는 言衆은 그것을 바르게 理解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6c는 16b가 제대로 理解되지 않자 새로운 動機를 부여하여 무슨 일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엉뚱한 새 속담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다음은 基本意味는 바뀌지 않으나 表現上의 變改를 입는 경우이다.

- 17 a. 黃政丞의 꿈은 계란
- 17 b. 鷄卵有骨
- 17 c. 계란에도 뼈가 있다.

黃喜정승이 하도 淸貧하므로 임금께서 날을 잡아 그날 들어오는 進上物品을 모두 黃政丞宅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定한 날은 마침 큰 비가 내려 들어오는 物品이 없고 저녁나절에 계란 한 꾸러미가 있었다. 그것을 꿔였더니 공교롭게도 모두 꿈은 것이어서 먹을 수 없었다. 이 故事가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는 ‘鷄卵皆骨’이라 되어 있고, 趙在

三의 松南雜識에는 ‘鷄卵有骨’이라 되어 있다.⁸⁾ 이것은 17a 단계의 순수한 우리말을 漢字로 成句化하는 過程에서 ‘끓었다’는 표현을 익살스럽게 音借하여 ‘骨’字를 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 俗談이 뜻하는 基本意味內容(운수가 나쁘면 되는 일이 없다)에는 변화가 없어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逐字的 意味로 보면 17c에 와서 ‘끓었다’가 ‘뼈가 있다’로 바뀌고 말았다. 대개의 俗談은 訛傳이 되어 도 이처럼 適用上의 難點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IV. 外形構造

俗談을 分析하고 檢討하는 方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俗談의 統辭構造 즉 表現言語 自體의 形式美에 接近하는 方法이고, 또 하나는 意味構造 즉 意味論 내지는 話用論의 諸機能을 解明하는 方法이다. 이 두 가지 方法은 실제에 있어서는 表裏關係에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相補의인 說明이 要求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선 分離하여 外形構造부터 밝혀 나가기로 한다.

外形構造上으로 볼 때, 俗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短型이요, 또 하나는 長型이다. 短型은 大部分 複合概念으로 構成된 語句(phrase)이거나 單文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며 長型은 重文 또는 複文을 基本構造로 하는 것이다. 形式構造上의 特性이 短型이나 長型이나에 따라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短型에서는 韻律的 調和를 發見하기가 쉽고 長型에서는 統辭的 調和가 두드러진다.

(1) 韻律的 調和

俗談에 맞들인 사람은 例外없이 그 外形構造上의 簡潔性에 魅了된다. 어떤 것은 押韻(rhyme) 技巧를 보여주며 어떤 것은 律格(metre) 技巧

8) 松南雜識의 鷄卵有骨 項을 옮겨 적는다.

諺傳 黃龍村 雖位尊宰相 然食數不足 長額頤故 御批日南門所入物貨盡賜矣, 適大雨無所入 及暮有鷄卵一包來 烹將食之 皆有骨 骨方言壞也 即卵殼也

를 보여준다. 또 어떤 것은 詩歌의 形態로까지 發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形式的 技巧때문에 俗談을 “言衆의 詩”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i) 押韻의 技巧가 보이는 것

18. 신침지 신꼐을 보겠다.
19. 치게 치고 제사 치대도 다 제멋 (以上 頭韻)
20.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21. 소는 소형, 새는 새형
22. 가는 날이 장날
23. 찜 먹고 알 먹고
24. 아이 치레, 송장 치레
25.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26. 열불도 뉘뉘, 쇠뿔도 각각. (以上 脚韻 또는 單語反復)

ii) 律格의 技巧가 보이는 것.

俗談이 쓰이는 環境은 반드시 俗談을 外形構造上으로 美化시킬 만한 餘裕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言衆들의 再引用 過程에서 描寫(表現)의 整齊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相當數의 俗談이 우리나라 傳統詩歌의 基本律格인 四音節길이 (4 mora)를 一音步로 하는 二音步 및 그 倍數인 四音步를 보여주고 있다.⁹⁾ 따라서 가장 典型的인 例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7. 공든탑이 무너지라.
28. 동무따라 강남간다.
29. 무른땅에 말뚝박기.
30. 병신자식 효도본다.
31. 자는법에 코침주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그 字數가 4·4調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위에 引用한 定格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休止 모라(mora)

9) 金大幸(1980) :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pp. 14~39 參照.

에 의해 二音步 또는 四音步의 律格을 보이는 데 손색이 없다. 물론 實際의 發話現場에서는 狀況에 따라 隨意的인 表現의 變化가 없는 것은 아니나, 休止 모라(mora)를 사용한다면(休止 mora를 ×로 표시함) 定格化의 可能性은 恒常 存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⁰⁾

32. 얼디면× 코닿을 데
33. 구데기× 무서워× 장×못× 담글까×.
34. 천자문도 못읽고× 인×위조 한다××.
35. 잘×해도 한×꾸중 못×해도 한×꾸중.
36. 금일×× 충청도× 명일×× 경상도×.
37.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38. 가지많은 나무는× 바람잘날 없다더니.

(2) 統辭的 調和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短型의 俗談이 대개 單文構成이라고 한다면 長型은 例外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重文 또는 複文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長型 俗談은 數的으로 보면 全體俗談의 一割以內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그 構造的 安定性으로 하여 俗談의 標準型이라는 印象을 강하게 풍긴다.¹¹⁾ 그 까닭은 뒤에 論議할 意味機能上的 여러 特性들과 文章構成이 表裏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長型의 例들이다.

i) 重文型

39.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40.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41. 진상은 꼬치에 꿰고, 인정은 바리에 실는다.
42.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맛이다.
43. 좋은 일에 남이요, 궂은 일엔 일가라.

10) 여기의 例文들은 音步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았다.

11) 文貞愛(1973) “俗談의 類型研究”, 國語教育論志 1, 大邱教大 pp. 87~98 및 拙稿(1977)參照.

44. 꿀먹은 벙어리요, 침먹은 지네라.
45.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46.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
47. 방관수 떡자루 잡듯, 장님 복자루 잡듯.
48. 잘되면 제탓, 못되면 조상탓.

ii) 複文型

49.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50. 소잡은 터전은 없어도 밤 벗긴 자리는 있다.
51. 입은 거지는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먹는다.
52. 시시데기는 재를 넘어도, 새침메기는 골로 빠진다.
53. 남의 흉이 한가지면 제 흉은 열가지다.
5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55. 웃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

V. 意味構造

俗談은 서너개의 音節로 構成된, 아주 짧은 短型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교묘한 隱喩로 말미암아, 自體內에서 서로 相衝하는 意味의 葛藤을 겪는다. 바로 이 점이 俗談을 俗談으로 쓰이게 하는 所以然이다. 간단히 몇 例를 檢討해 보자.

- 56 a. 중의 빗
- 56 b. [-頭髮]의 [+頭髮]
- 57 a. 그림의 떡
- 57 b. [-飲食]의 [+飲食]
- 58 a. 늙은이 불량한 것.
- 58 b. [+壯重] [-壯重]
- 59 a. 짚신에 분칠
- 59 b. [-高貴]에 [+高貴]

위의 例들은 先行名詞가 지닌 意味屬性과 後行名詞가 지닌 意味屬性

이 對立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을 意味屬性的 相對性이라 할 수 있겠는데¹²⁾ 그 相對性的 葛藤으로부터 隱喩의 結果인 새로운 抽象意味가 만들어진다. 이 抽象意味야 말로 俗談이 具體的인 狀況에서 俗談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참 意味이다. 이 참 意味를 原意味 또는 基本意味라고 用語上的 規定을 한다면 글자가 나타내는 逐字的 意味는 眞意味 또는 表面意味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중의 빛”의 表面意味는 글자 그대로 “중이 가지고 있는 빛”이요 基本意味는 “가지고 있어 보아야,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는 抽象化된 意味이다. “그림의 떡”의 表面意味는 “그림속에 그려진 떡”에 지나지 않으나 그 基本意味는 “아무리 들여다 보아야 실속이 없어 속만 상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抽象化한다. 요컨대 俗談은 表面意味로부터 抽象化된 基本意味를 設定할 수 없는 限 俗談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後述參照). 이것은 俗談이 起源的으로 特殊事例의 描寫로부터 生成의 動機를 얻어 意味의 一般化가 이루어져 適用이 擴大된다는 事實과 一致하는 現象이다(生成과 定着項 參照).

意味의 葛藤은 다음과 같은 加重現象을 나타내기도 한다.

- 60 a. 빛주고 뺏맞기.
- 60 b. [損失 1]하고 [損失 2]
- 61 a. 뒤는 말에 채적질.
- 61 b. [速力 1]에 [速力 2]
- 62 a. 두부살에 바늘뼈
- 62 b. [軟弱 1]에 [軟弱 2]

위의 例들은 先行語가 지닌 意味屬性이 後行語에 가서 더욱 深化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하여 60은 損失이 重疊되는 事例에 쓰이게 되고 61은 일의 進行을 加速化하는 事例에 使用한다. 이러한 意味의 重疊을 意味屬性的 漸層性으로 規定할 수 있다. 이 “漸層性”은 앞에 言及한 “相

12) 拙稿 (1977: 154) 參照.

對性”과 더불어 俗談의 根幹 意味構造를 이룬다.

長型的 俗談들은 統辭構造가 이미 並立 또는 對立을 이루고 있으므로 意味의 葛藤을 短型的 경우보다 더욱 明白하게 나타낸다.

63 a. 들으면 病이고 안들으면 藥이다.

63 b. [+苦痛] [-苦痛]

64 a.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64 b. [+親近] [-親近]

65 a. 개 같이 벌어서, 경승같이 먹는다.

65 b. [-高貴] [+高貴]

66 a. 말만 잘하면 천냥 빛도 갚는다.

66 b. [資產 1] [資產 2]

67 a.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다.

67 b. [豪奢 1] [豪奢 2]

위의 例에서 63~65는 意味屬性이 相對性을 보임으로써 葛藤을 일으키는 것이며 66~67은 意味屬性이 漸層性을 보임으로써 葛藤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俗談의 意味構造는 比較的 典型性을 띤 俗談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意味構造上的 葛藤은 存在하나 表面意味로부터 抽象化할 餘地가 없어서 表面意味가 거의 그대로 基本意味의 구실을 하는 俗談도 있다. 다음 例를 檢討해 보자.

68 a. 無子息이 上八字

68 b. [-幸福]이 [+幸福]

69 a. 말이 말을 만든다.

69 b. [言語 1] [言語 2]

68은 意味屬性의 相對性을 드러내고 69는 意味屬性의 漸層性을 보인다는 점에서 俗談 內部構造上的 意味의 葛藤은 存在한다. 그렇지만 그들 俗談이 나타내고 자하는 命題는 그 遂字的 意味에서 더 이상 抽象化할 수 없다. 그러면 그 表面意味가 정말 그대로 基本意味가 될 수 있는

가?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表面意味가 그대로 基本意味가 되어 거기에 아무런 添加 意味機能도 덧붙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單純한 陳述이지 적어도 比喻를 主生命으로 하는 俗談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68은 “子息이 없어서 多幸”이라든가 “子息 가진 사람 부러워 할 것 없다”는 含蓄意味를 話用論的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며 69는 “더 이상 論爭을 벌이지 말자”든가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含蓄意味를 가지게 될 때 俗談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¹³⁾

지금까지의 論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俗談은 그 自體 內部에서 意味의 葛藤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意味 屬性의 相對性和 漸層性의 두 가지가 있다.

(2) 俗談은 遂字的으로 풀이되는 表面意味와 그것을 抽象化하여 얻게 되는 基本意味로 區分할 수 있다.

(3) 表面意味와 基本意味의 間隔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話用論的인 含蓄意味가 存在한다.

13) 重文이나 複文構造를 가진 俗談의 意味를 分析하는 過程에서 때로 俗談이 지닌 比喻的 機能을 잘못 理解하여 意味分析에 混亂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例컨대 金善豐(1980:278~281)은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뉘어지는 長型俗談을 크게 네 가지로 區分하였다. 主題意味部를 a, 從屬意味部를 b로 하고 副主題部를 a'로 하여 다음 네 가지를 設定하였다.

(1) ab型 (2) ba型 (3) aa型 (4) a'a型

가령 ab型에는 다음 俗談을 例示한다.

- 자식은 제 자식이 좋고 (a),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다. (b)
- 여인은 돌리면 버리고 (a), 기구는 빌리면 깨진다. (b)

물론 이 둘 속담이 제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경우와 여인을 내돌리는 경우에 대해 쓰일 수도 있으며 그 때에는 (a)를 主題意味部로 (b)를 從屬意味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를 主題意味로 삼아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主張을 할 수 없는 限 主題나 從屬이니 하는 區分과 名稱은 좀 더 再考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ab型 또는 ba型的 可能性을 오히려 言語에 關한 俗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에서 後半部를 主題意味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話用論的 發話現場에서 前半部와 後半部는 자유롭게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말하였건 俗談의 眞髓는 比喻性이 강한 部分에 있는 것이므로 前半部 後半部를 固定的인 것으로 보아 主題意味部, 從屬意味部 등의 명칭을 붙이기는 좀 困難하다.

그러므로 俗談은 話用論의 接近을 試圖하지 않는 限 그 實相을 完璧하게 밝힐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이 問題를 檢討해 보기로 하자.

VI. 話用論의 諸機能

俗談研究家들을 當感하게 했던 問題는 俗談의 比喻性을 어떻게 接近하여 把握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동네 북이나?”라는 것이 俗談으로서의 資格을 갖추려면 그 語句가 直接的인 敘述이 아닐 때, 즉 實在하는 “동네 共有의 북”을 指稱하지 않을 경우를 前提로 한다. 이 俗談은 어떤 어수룩한 어린이가 동네의 다른 친구들에게 자주 매를 맞을 때 그 어린이를 가리키는 表現 等屬으로서만 俗談이 되는 것이다. 좀더 擴大하면 어떤 集團에서 攻擊을 받는 人物에게 適用할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比喻의 機能이 “동네 북”의 경우처럼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反語의 解釋만을 容納하기도 하며 社會的으로 認定된 多様な 含蓄意味로 解釋할 것을 誘導하기도 한다. “姓不同 남”이라는 俗談을 例로 생각해 보자.

70. “철수 말이니? 그 친구는 姓不同 남이지 뭐.”

여기에서 “姓不同 남”의 表面意味는 “姓이 다르니까 親戚이 아닌 他人”이란 自명한 同一律의 命題를 뜻한다. 그러나 그 基本意味는 “남이기는 하지만 親戚보다 더 多情한 사이”라는 反語의 表現으로 해석해야 바르게 理解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姓不同 남”은 “親戚보다 더 多情한 사이” 더 나아가 “親戚” 내지는 “兄弟”라는 意味를 反語的으로 含蓄한다. 이러한 反語的 含蓄意味는 오랜 期間의 慣用을 通하였으므로, 동

14) 거듭 強調하는 바이지만 俗談은 반드시 被比喻項의 事實을 主語項으로 하였을 때 敘述語項에 놓이는 것이다. 俗談의 存在要件=(被比喻項+比喻項) 俗談의 存在要件=(主語+敘述語), 俗談의 存在要件=(特定事例+俗談) 拙稿 (1977:148)參照.

시에 社會的 含蓄意味라고 할 수 있다. 그 慣用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言語社會의 言衆이요, 또 그 言衆의 意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俗談은 한 言語社會가 慣用하는 含蓄意味 때문에 持續的인 比喻의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俗談의 一次的 機能이 比喻에 있다하여 特定한 事實에 대한 比喻的 敘述만으로 俗談이 遂行해야 할 모든 機能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 比喻를 根幹으로 하고 表面意味에서 導出된 基本意味로 해석되는 것만은 틀림 없으나 거기에 話用論的 副次機能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俗談은 비로소 俗談으로 쓰인 效果를 完成시킨다. 우리는 그 效果를 肯定的인 側面과 否定的인 側面的 두 가지로 整理해 보고자 한다. 前者는 敎化的 機能이고, 後者는 諷刺的 機能이다.

(1) 敎化的 機能

俗談과 格言이 混同되었던 가장 重要的 理由는 俗談이 遂行하는 副次的 機能으로서의 敎化的 機能때문이었다. 가령 다음 俗談을 생각해 보자.

- 71 a. 등잔 밑이 어둡다.
- 71 b. 자기에 가까운 일을 잘 모른다.
- 71 c. 가까운 곳에 진실(비밀)이 숨겨져 있다.

71a가 描寫하는 特殊한 事例은, 그것을 比喻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特殊事例에 適用되기 위하여 意味의 抽象化가 進行되어 대체로 71c와 같은 一般性을 띤 基本意味로 解釋된다. 그런데 이 基本意味는 發話의 現場狀況에 따라 命令, 指示, 警告등을 나타내는 婉曲한 表現일 수가 있다. 그리하여 基本意味 71c를 바탕으로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은 含蓄意味를 反映시킬 수 있다.

- 71d. 너 自身을 돌이켜 보라.
- 71e. 가까운 사람을 操心하라.

이때에 이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너 自身을 알라”는 格言과 敎

化的 機能에 있어서 一致를 이룬다.

다음 속담을 생각해 보자.

72.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73. 앞담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72는 緻密하고 操心性이 많은 性品の 사람을 描寫하는 俗談이다. 그러나 이 俗談이 어떤 發話現場에서 命令形의 文章으로 사용되었을 때, 대체로 그 基本意味는 “每事를 操心하여 行하라”라는 含蓄意味를 곁들이고 敎化的인 機能이 強調된다. 이런 경우에 이 속담 72는 比喩의 形態로 표현된 格言이라고 할 수 있다. 73은 이른바 禁忌談과 一致한다.¹⁵⁾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俗談과 禁忌談에 두루 包含시킬 수밖에 없다. 女子의 지나친 行動 때문에 家運이 기울거나 일이 잘 안되는 事例를 比喩로 표현했을 때는 俗談이며 女子를 순전히 警戒하는 敎化的 目的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禁忌談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俗談은 話用論上으로 意味機能이 多樣하게 作用하므로 格言·金言·箴言 등이 지닌 敎化的인 意味機能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比喩를 토대로 하고 있다. 慣用語句가 한 言語社會에서 自然發生的으로 생겨난 言語資產이기 때문에 單一한 觀點의 論理나 意味로만 解釋되지 않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問題라 하겠다.

(2) 諷刺의 機能

俗談이 意表한 바 基本意味를 敎化的 方便으로 使用할 수 없는 現場狀況에서는 揶揄나 諷刺로 變容한다. 敎化的 話用論的 構成要件은 話者가 聽者보다 人格, 地位, 年齡 등에서 優位에 있을 때임에 反하여 揶揄나 諷刺는 좀더 복잡한 構成要件을 갖는다. 우선 話者 聽者間의 二者對應關係만은 아니다. 論議의 主體는 話者보다 人格, 地位, 年齡 등에서 同等하거나 優位에 있다고 判斷되며 聽者는 그 論議의 主體와 密接한

15) 拙稿(1970) “禁忌 및 禁忌談의 意味論的 考察” 參照.

關係에 있음을 前提로 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現場狀況에서 考慮해야 할 많은 要素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다음에 몇 예를 假定해 보자.

- 74 a. 열두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없다.
- 74 b. 여러가지 能力이 반드시 現實的 生活手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75 a. 외손백이 올라?
- 75 b. 혼자서 일으키는 紛爭은 없다.
- 75 c. 너로하여 事件이 일어났다.
- 76. 아니 맨 굴뚝에 연기 날까?

속담 74a는 74b로 해석되는 基本意味를 갖는다. 그런데 이 俗談이 돈벌이에는 關心이 없고 여러가지 趣味活動에 열을 올리는 子女에게 지나치게 趣味活動에 沒入하지 말라는 警告의 뜻으로 使用되면 敎化的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 그러나 多才多能한 것으로 定評이 나 있는 친구가 돈을 꾸어달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그를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를 言及하여 이 속담을 적용한다면 다분히 비꼬는 心思를 反映하는 表現이 될 것이다. 75a나 76은 單純한 比喻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強한 諷刺나 揶揄를 同伴하는 것이 보통이다. 興味 있는 事實은 75a와 76이 分明히 基本意味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자기의 正當性을 主張하는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거의 同一한 含蓄意味를 갖게 되어 “너에게도 過誤가 있을 터인데 왜 그래!”라는 非難을 表明하는 方便이 되기도 한다.

以上으로 俗談의 副次的 機能에 敎化和 諷刺라고 하는 두가지 重要한 話用論的 機能을 論議하였다. 우리는 同一한 俗談이 發話現場의 特殊狀況에 따라 敎化로도 쓰일 수 있고 諷刺로도 쓰일 수 있음을 檢證하였다. 그 두 가지 機能은 야누스의 特性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는데 敎化는 보다 直接的이요, 諷刺는 보다 迂迴的이요 間接的이라는 것만은 分明하다. 우리의 論議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만 俗談의 話用論的 副次 機能은 觀點에 따라 더 많이 細分된 觀察을 試圖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議만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表를 그릴 수 있다.

研究領域	俗談意味의 段階	意味機能의 進行相	
統辭論	表面意味	逐字解釋	意味의 抽象化·一般化
意味論	基本意味	比 喻	
話用論	含蓄意味	教化·諷刺等	副次意味機能의 擴大

이 표는 俗談의 活用範圍가 매우 伸縮性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俗談은 表面意味와 基本意味사이의 間隔이 없을 수도 있다. 言語에 關한 俗談에 그러한 例가 있다. 그 때에는 話用論의 含蓄意味의 比重이 높아질 것이다. 또 어떤 俗談은 特別히 話用論의 含蓄意味가 考慮되지 않고 단순한 比喻의 機能에서 멈출 수가 있다. 靑丘대 우리는 俗談이 一率的으로 解釋되는 慣用語句가 아님을 確認해야 할 것이다.

VII. 民俗資料로서의 特性

俗談을 構成하고 있는 語彙나, 俗談의 基本意味를 좀더 細密하게 관찰해 본다면 民俗的인 次元에서 우리 先祖들의 意識構造라든가 生活樣相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쉽게 指摘할 수 있는 몇가지 單言及하기로 한다.

(1) 卑俗性和 日常性

俗談이 지닌 強烈的한 卑俗性은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되어야 한다. 아다도 이것은 庶民意識의 卑俗性을 反映하는 徵表일 것이다. 大衆의 日常生活環境에서 쉽게 發見할 수 있는 對象으로부터 素材를 고르고 있는 俗談은 그 語彙의 卑俗性이 必然의 結果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輕蔑을 重視하던 朝鮮朝의 兩班들은 俗談을 漢字의 故事成句와 같은 形態로 變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口語形態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무리 賤薄한 表現이라도 그것을 漢字로 바꿀 때에는

그 卑俗性이 多少 輕減되기 때문이다.

이제 俗談에 特別히 자주 등장하는 語彙를 提示해 본다.¹⁶⁾

개(142) 똥(106) 물(100) 소(87) 집(86) 사람(85) 밥(83) 말<言語>(77)
발<足>(71) 떡(66)

이들 10個의 單語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이 “개(犬)”와 “똥(糞)”이라고 하는 사실은 俗談의 卑俗性을 端的으로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개”는 “소”나 “말(馬)”처럼 단순히 家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보다는 “개가죽, 개고기, 개구멍, 개꼬리, 개대가리, 개똥, 개자식, 개팔자”등 卑俗性을 지닌 接頭辭 또는 冠形語로 쓰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賤한 것을 比喻하는 代表的인 單語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이 10個 單語를 頻度順으로 追跡해 나가면 우리 先祖 庶民들의 主된 關心事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概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俗談에 자주 등장했다하여 實際의 生活이 반드시 그것에 對應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象徵的인 意味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庶民들의 日常의 關心事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에 提示한 10개의 單語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곱개 範疇와 順序를 設定해 볼 수 있다.

개(家畜)→물(自然)→집(住居)→사람(人倫)→밥(飲食)→말(言語)→발(身體)

이들 일곱개 범주가 어떤 규모로 俗談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i) 家畜

16) 李基文(1962) 俗談辭典의 索引에 나오는 語彙만을 對象으로 調査한 것이다. () 안의 숫자는 索引에 나타난 페이지 표시의 頻度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제의 俗談은 그 數字보다 당연히 훨씬 많을 것이 豫想된다. 以下 ()의 숫자는 모두 索引의 頻度數이다.

俗談에 “개”를 비롯하여 家畜 내지는 짐승이 등장하는 이유는 人間과 人間事物 가장 가깝게 接觸할 수 있는 動物과 그 動物의 屬性으로부터 찾아 내어 比喻하고자 하는 自然스런 發想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俗談에 자주 나오는 짐승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개(142) 소·황소(97) 호랑이·범(60) 말(55) 닭(37) 새(35) 고양이(29) 쥐(27) 강아지(26) 까마귀(24) 용(21) 돼지(18) 토끼(11) 뱀(10)

이들 짐승가운데서 새(鳥), 고양이(貓), 까마귀(烏)를 除外하면 모두 十二支에 해당하는 動物들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 十二支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古來로 自然棲息하지 않는 양(羊)과 원숭이(猿)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周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事物이 입에 오르내릴 수 없다는 俗談의 大衆性和 日常性을 여기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ii) 自然

물(100) 불(52) 돌(39) 날<日>(34) 바람(32) 비<雨>(28) 밤<夜>(22) 하루(20) 하늘(19) 봄<春>(14) 달<月>(13) 벼락(13) 별<星>(11)

“물”과 “불”을 위시하여 “비” “바람”등 自然現象에 관련된 단어들은 農耕社會에서 自然條件의 比重이 어떠한가를 反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住居

그 다음의 關心事는 住居問題이다. “집”은 生活環境가운데서도 自然에 비금가는 것이었음을 暗示한다. 衣食住의 세가지 중에서는 단연 집 문제가 으뜸이라는 점도 흥미있는 문제이다.

iv) 人倫

네번째로 注目되는 關心事는 “사람”으로 代表되는 人倫의 問題이다. 아마도 實質的인 重要性으로 본다면 이 人倫이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나타내는 單語를 다시 細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계열 : 도둑(48) 중(36) 양반(21) 장사(20) 저지(16) 과부(15) 주인(13)
경승(11) 소경(11)

2계열 : 아이(48) 며느리(46) 자식(41) 손·나그네(29) 계집(26) 아버지(25)
어머니(20) 딸(18) 서방(18) 아들(17) 사위(17) 사돈(16) 서집(14)
시아버지(13) 시어머니(13) 손자(10) 장가(10) 마누라(10)

1계열은 職業이나 身分을 나키내는 語彙이고 2계열은 家族構成과 관계가 깊은 語彙이다. 1계열에서 “도둑, 중, 양반, 장사”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대개 그들이 지닌 社會的 特殊性을 어떤 方法으로든지 諷刺하려는 意圖가 內包된 結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바꾸어 표현하면 俗談을 創案하고 그것을 즐겨 사용했던 主體勢力들은 朝鮮朝의 平民層이었던 農民이었음을 證據하는 셈이다. 2계열의 語彙가운데 아이(자식)와 며느리가 上位를 占有한다는 사실은 家庭事에 있어서 子女教育和 姑婦關係의 問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v) 飲食

그 다음은 飲食의 問題로 넘어온다. “밥(83)”과 “떡(66)”을 으뜸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穀類와 飲食이 關心의 對象이 된다.

콩(45) 술(酒)(31) 장(醬)(29) 죽(28) 맛(味)(23) 호박(22) 보리(21) 쌀(19)
엿(16) 소금(12) 두부(12) 잔치(12) 술(匙)(12) 양식(11) 젓(乳)(10)

vi) 言語

人間事에 있어 言語問題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俗談이 言語로 諸般 人間事를 叙述描寫하고 諷刺까지 하는 것이므로 言語自體에 關心을 돌리는 再歸的 叙述描寫가 당연히 存在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俗談研究가운데서 言語에 關한 俗談이 일찍부터 注目받은 것도 그러한 再歸的 叙述描寫와 關聯이 있는 듯하다. 言語에 關한 俗談의 數字는 近 800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俗談의

10%를 훨씬 上廻하는 것이다.¹⁷⁾

vii) 身體

발<足>(71) 눈<目>(54) 코(45) 손(44) 입(39) 배<腹>(32) 다리<脚>(32)
이(31) 마음(30) 귀(28) 뼈(21) 뺨(18) 머리(17) · 대가리(14) 목(16) 허리(13)
불알(12)

日常의 關心에서 마지막을 차지하는 이들 身體語는 “약<藥>(33)” “병<病>(19)”과 함께 心情·健康·衛生의 문제들과 直接·間接으로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隨意性和 便宜性

俗談으로부터 誘導해 낼 수 있는 또하나의 特性은 俗談이 提示하고 있는 命題——곧 俗談의 基本意味가 반드시 普遍的 眞理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比喻를 主目的으로 하는 俗談은 日常生活環境속에서 臨機應變으로 話者의 自己合理化를 위해 사용되는 일이 많기때문에 어떤 두 개의 俗談을 나란히 對比해 놓고 보면 서로 相反되는 基本意味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

- { 77.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 진다.
- { 78.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 { 79. 꿈든 닭이 무너지랴.
- { 80.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 { 8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 82.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깨.
- { 83. 걸불안.
- { 84. 가마귀 겁기로 속마음도 겁으랴.
- { 85.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 { 86. 거짓말하고 뺨맞는 것보다 낫다.
- { 87. 병신(자식) 고운데 없다.
- { 88. 병신자식 효도한다.

17) 朴甲洙(1966) “言語에 關한 俗談攷” 蓮園吳河潤先生華甲紀念論文集 pp. 165 ~195 參照 이 논문에서 朴甲洙는 言語에 關한 俗談 777個를 크게 4부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 89.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 90. 부부는 돌아누우면 남남.
- { 91. 勇將 밑에 弱卒 없다.
- { 92. 개천에서 龍이 난다.
- { 93.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 { 94. 선의원 사람 죽이고, 선무당이 사람 살린다.
- { 95. 빛좋은 개살구.
- { 96. 개살구도 맛들일 닻.
- { 97. 팔이 안으로 굽지 내굽나?
- { 98. 이웃 사촌.
- { 99. 그 애비에 그 자식.
- { 100. 애비는 애비, 자식은 자식.

위에 짝지어 놓은 한쌍의 俗談들은 그 表面意味를 어느 정도로 抽象化하며, 또 現場狀況에서 어떤 含蓄意味를 갖느냐 하는 데에 따라 서로 正反對의 意味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俗談의 意味는 論理的 矛盾을 부담없이 受容한다. 俗談이 普遍妥當한 眞理를 말하려는 金言類와는 달리, 人間事의 斷面을 隨意的으로 露出하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庶民性和 冷笑性

우리는 앞에서 俗談이 지닌 意味上的 論理的 矛盾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矛盾이 兩立하는 것이 또한 人間社會의 眞面目이라고 한다면, 결국 人間은 그 矛盾을 넘어서는 次元에서 살고 있는 셈이며 俗談은 그러한 人間事의 거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庶民들의 國家觀이나 宗教觀같은 高次元的인 意識의 問題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101. 이기면 忠臣, 저면 逆賊.
- 102. 잘되면 忠臣, 못되면 逆賊.
- 103. 忠臣도 天命이요, 逆賊도 天命이라.

이런 俗談이 示唆하는 바는 一般庶民이 政治權力과 無關하다는 第三

者的 立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權力과 密着되어 있는 兩班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客觀的이고 冷笑的인 態度를 보인다.

104.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
105. 사모 쓴 도둑놈.
106. 대신땀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107. 양반은 굴더, 상놈은 발더.

이와같이 兩班에게 冷笑的인 면서도 官尊民卑의 現狀을 運命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發見되기도 한다. 따라서 俗談속에 “忠誠”이나 “民族”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當然한 사실이다.¹⁸⁾

그러면 俗談에 反映된 宗教觀은 어떠한가? 만일에 佛敎가 社會發展의 重要한 推進力으로 작용했던 統一新羅나 高麗初期의 俗談이 있다면 佛敎를 素材로 하는 肯定的인 描寫가 있었을 듯도 하나 다음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俗談에서 佛敎는 결코 좋게 表現되고 있지 않다.

108. 불 차인 중놈 달아나듯.
109. 비맞은 중놈.
110. 부처님 위해 불공 하나?
111. 의뭉하기는 노전대사라.

이들 例를 보면 도대체 僧侶는 非難과 耶揄의 對象이었지, 尊敬의 痕跡이라고는 어디에고 찾을 길이 없다. 朝鮮朝社會에서 佛敎가 衰微하고 零落하기는 했으나, 때때로 高僧大德이 國師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國難에 處하여서는 僧兵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俗談속에 肯定的인 佛敎像 특히 僧侶像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大勢에 便乘하거나 特定 社會集團에 대해서 排他的으로 움직이는 庶民들의 意識構造를 짐작케 한다. 필경 이와같은 意識의 脉絡은 現

18) 沈在箕(1970)는 禁忌談의 分析을 통하여 그 禁忌談을 愛用하던 前時代 庶民들이 “忠”이나 “나라”에 관련된 禁忌談이 없음을 指摘한 바 있다.

代에 만들어진 俗談 “醫師와 辨護士는 허가낸 도둑놈” 따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俗談을 통해 건전하고 進取的인 社會觀을 推論해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野卑하고 便宜主義的인 現實爲主의 思想이 大衆의 冷笑的인 意識에 結付되어 있기 때문이다. 흔히 俗談을 “말 중의 寶玉이요, 말 속의 별이며, 民族의 獨特한 叡智와 情緒를 包含”한다고 그 肯定的인 面을 強調하여 왔다.¹⁹⁾ 俗談의 敎化的 機能이나 修辭的 技巧의 觀點에서만 말한다면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俗談이 지닌 思想性을 銳意檢討한다면 오히려 官尊民卑의 前近代의 風土속에서 억눌려 지낸 가난한 農民들의 冷笑的인 心思가 꽤 많이 反映되어 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반드시 건전하고 誠實한 人生觀이 나타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俗談을 資料로 韓國人의 性格을 分析한 研究結果는 ① 言語重視 ② 體面志向 ③ 目前實利 ④ 被害意識이라는 네가지 特性을 밝혀내고 있다.²⁰⁾ 이것을 더 要約해 본다면 體面과 實利의 兩極을 便宜에 따라 往來하는 機會主義的인 傾向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特性들이 정말로 모든 韓國人의 참모습은 아니며 一部 庶民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傾向에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역시 바람직한 人間性品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그것은 결국 冷笑的인 意識의 發露라는 觀點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VIII. 結 語

以上으로 그동안의 俗談研究의 발자취를 概觀하면서 俗談이 어떤 觀點에서 더 深化된 研究가 要請되는가를 찾아 보았다. 이 글에서 우리는 俗談에 대한 這問의 關心과 愛着이 그 言語遺産에 대한 所重性을 石過

19) 李熙昇의 李基文(1962)俗談辭典에 부친 序文

20) 崔祥鎭(1980)“俗談으로 본 韓國人의 性格”新東亞 1980年 3月號 pp. 228~233 參照.

해 왔다는 自責과 悔悟에서 비롯된 多분히 感傷의인 自覺과 無關하지 않음을 밝히려고 하였다. 言語資產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中立的 價値를 지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잘 쓰면 좋고 잘못쓰면 나쁜 것이다. 俗談의 敎化的 機能에 強調點을 주면 좋은 것이요, 諷刺—— 그것도 被害意識에 사로잡힌 至極히 冷笑의인 諷刺에 強調點을 주면 俗談은 否定的 要素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俗談에 대한 話用論의 研究의 重要性을 強調한 것도 이 글의 目的이었다.

要컨대 俗談은 庶民社會의 言表的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言語美學 내지는 言語遊戲의인 側面에서 볼 때에 俗談 意味機能의 多樣性이 우리에게 주는 재미만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中間 里程標로 하여 앞으로 俗談에 대한 研究가 더욱 활발히 進行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參 考 文 獻

- 姜信沆(1979) “우리나라 俗談의 特徵과 內容” 無形의 證人, 正和出版社
- 姜在哲(1980), 韓國俗談의 根源說話, 白鹿出版社.
- 金大幸(1980),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 金文昌(1974), 國語慣用語의 研究, 國語研究 第30號, 서울대 국문과.
- 金善豐(1972),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 5, 韓國民俗學會.
- 金善豐(1980), “俗談” 우리民俗文學의 理解(金烈圭外著, 開文社).
- 金宗澤(1967),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호.
- 金宗澤(1982), 國語話用論, 螢雪出版社.
- 文貞愛(1973), “俗談의 類型研究” 國語教育論志 1, 大邱教大, 國語科.
- 朴甲洙(1966), “言語에 關한 俗談攷” 蓮圃異河潤先生 華甲紀念論文集.

- 徐石演(1976), “俗談의 比較研究” 朴仁守博士 華甲紀念論文集 第Ⅱ輯.
- 沈在箕(1970), “禁忌 및 禁忌談의 意味論的 考察” 서울대 교양과정부
論文集, 第Ⅱ輯.
- 沈在箕(1977), “俗談의 意味機能에 대하여”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
文學論叢.
- 沈在箕(1981), “李義鳳의 東韓譯語에 대하여” 先清語文 11·12合輯, 金
亨奎博士古稀紀念論叢.
- 李基文(1962), 俗談辭典, 民衆書館.
- 李基文(1976), 韓國의 俗談(三省文化文庫 84), 三省文化財團.
- 李庸周(1963), “俗談의 感化性” 서울대학교 師大學報.
- 李乙煥(1971), “韓國俗談의 語·句·節 類型研究”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 이택희(1983), “慣用的 表現의 言外意味研究” 語文教育 第5輯, 全北師
大教育大學院, 語文教育研究會.
- 曹喜雄(1969), 韓國說話의 研究, 國文學研究, 第11號, 서울대 국문과.
- 崔祥鎭(1980), “俗談으로 論 韓國人의 性格” 新東亞 1980年 3月號.
- Austin, J.L. (196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C.C. (1959), Malay saying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ole, P. & J.L. Morgan (1975),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Grice, H.P. (1968), “Utter's meaning, sentence-meaning and word-
meaning” Foundations of Language 1968 4(3).
- Lyons, John (1981), Language, meaning & context, Bungay, Suffolk:
The Chaucer Press.
- Sadock, J.M. (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Searle, J.R. (1969), *Speech Acts*. Cambridge: The University Printing House.